새국어생활 커뮤니티를 만들자

엄진섭 ·커뮤니케이션북스 사업부장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새국어생활》을 비롯하여 유용하고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해주는 국립국어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과 비교하면 어엿한 성인이고, 본격적으로 미래를 만들어갈 때이기에 더욱 뜻 깊습니다.

지금 사회 변화 속도는 엄청납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대중화로 공유와 반응이 실시간이 되었습니다. 검색어 1위가 되고 리트윗 몇 번이면 거의 전 국민이 아는 데 1시간이나 걸릴까요.

국어는 더욱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문가가 담보할 수 있는 영역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미디어의 발달로 우리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고, 인터넷은 프로 같은 아마추어를 엄청나게 양산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가장 활발하게 우리말을 사용하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이 국어 생활이나 정책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새국어생활》에 '현장의 소리'가 좀더 반영되고, 상호 커뮤니케이션하는 장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비전문가 독자의 투고를 활성화하고, 준전문가들의 참여와 교류를 확대시

켰으면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현장은 '생활' 현장과 '교육' 현장, '미디어' 현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 운영자, 파워 블로거, 논술 학원 교사, 방송 작가, 집필가, PD, 편집자, 다양한 매체의 기자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새국어생활》에 준전문가들의 생생하고 치열한 이야기를 담아 주신다면? 그 준전문가들의 국어 생활 커뮤니티가 국어원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된다면? 커뮤니티의 활동 결과물이 《새국어생활》에 소개된다면?

국어 활용과 생활에 대한 비전문가와 준전문가의 참여와 교류가 《새국어생활》을 중심으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국어원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훨씬 더 많이 국어원을 언급하고 추천하며, 훨씬 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